

중학생 시절 처음 기관사를 꿈꾸게 된 이후, 저는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라 선박의 안전과 운항을 책임지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기관사는 선박의 심장을 책임지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수많은 장비와 시스템을 관리하며 선박 전체의 안정적인 운항을 유지하는 역할이기에,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책임감과 협력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실습 과정에서 저는 기관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발견하고 대비하는 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기관실 순찰을 수행하던 중, 저는 장비 주변에서 미세한 냉각수 누수를 발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즉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장비를 점검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구를 미리 정리하고 관련 매뉴얼을 확인하는 등 스스로 대응 체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예방 중심의 점검 습관이 기관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습 초기에는 두 개의 케미컬 통을 동시에 운반하는 작업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단순히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데이워킹이 끝난 후 3기사와 함께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꾸준한 노력 끝에 이후에는 같은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갖추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일단 해봐"라고 말씀하시며 도전하는 용기를 강조하셨고, 동시에 "만약에?"라는 질문을 통해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길러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배우고 적응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서관 활동을 통해 협력과 책임의 중요성을 배웠고, 해외 어학연수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협력해야 하는 선박 환경에서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MOL은 안전과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선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배우며 전문성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선박의 운항 시스템과 안전 절차를 철저히 익히고,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는 점검 습관을 통해 안정적인 운항에 기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사로 성장하고,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받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선박 운항과 정비 과정에서 발견한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선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바다 위에서 한 사람의 역할은 곧 선박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팀원들과 협력하며,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는 기관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MOL의 선박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기관사가 되고 싶습니다.